

# 아름다운 삶의 미래를 모색하는 제 38회 문화강좌

## 신채호 선생의 민족정신회화

“선생은 기존의 한국사, 즉 단군기사 위만삼국으로 이어진  
역사인식 체계를 비판하고  
대단군조선-삼조선-부여-고구려 중심으로  
계승되는 역사체계를 다시 세웠다. 고 조 선  
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 
만주대륙이 우리 민족의 영토였음을 밝혔다.”



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 
역사를 읽을 것이며,  
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 
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.  
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 
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.  
-단재 신채호 (1880. 12. 8 ~ 1936. 2. 21)  
독립운동가, 사학자, 언론인

- 강 사 || 박병훈(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)  
 언 제 || 2014년 10월 18일(토) 오후 4시  
 어디서 || 경기전 뒤편 제세한의원 2층 한국고전문화연구원 강의실  
 전북 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102(경원동 2가 43-3)  
 참가비 || 무료 문의 || 063-286-3005

주최 ||  한국고전문화연구원